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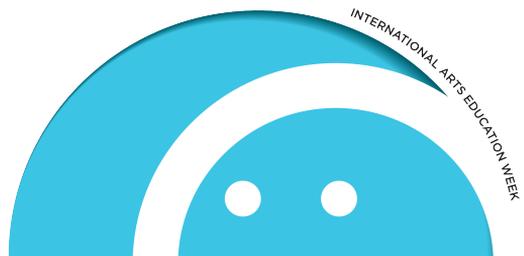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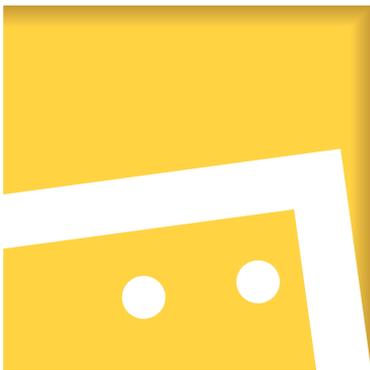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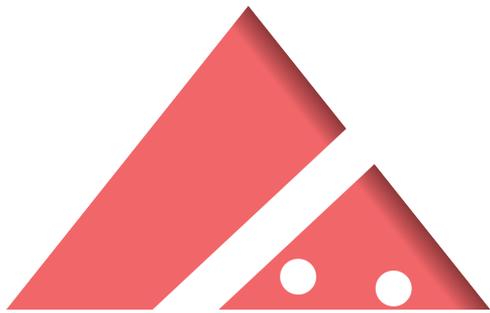
# 2019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국제심포지엄

5.22(수) 국립중앙박물관

5.23(목) 국립현대미술관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왔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국제심포지엄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있을까

#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2019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어젠다’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던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올해 8회를 맞이하는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포럼, 해외전문가 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교류, 학습, 경험의 장을 펼칩니다.

**슬로건**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일 시** 2019. 5. 20(월) ~ 5. 25(토)

**장 소**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국 문화기반시설

**주 제** 영유아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요 프로그램

국제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 포럼, 해외전문가 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전문인력 연수, 지역별 주간행사 연계 시민참여형 행사 등

---

**홈페이지** [www.arteweek.kr](http://www.arteweek.kr)

#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2019 KACES  
International Symposium

##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은 다음의 질문을 토대로 기획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당신만의 정의가 있나요?  
그들은 누구인가요? 왜 영유아·어린이와 작업하나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을 설계할 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동시에 가르치지 않나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가요?  
어린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만 알려주어야 할까요?  
아이들과 작업할 때 사회의 비극, 죽음 등의 주제를 다루어도 되나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콘텐츠는 영유아·어린이 이외 그룹에게는 어떤 감흥을 줄 수 있나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유아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와 어린이를 둘러싼 질문과 고민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  
About the Very Young: Inspiration from the Experience

---

**국제심포지엄 II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About the Arts Explorers: Sharing ideas, practices, and insigh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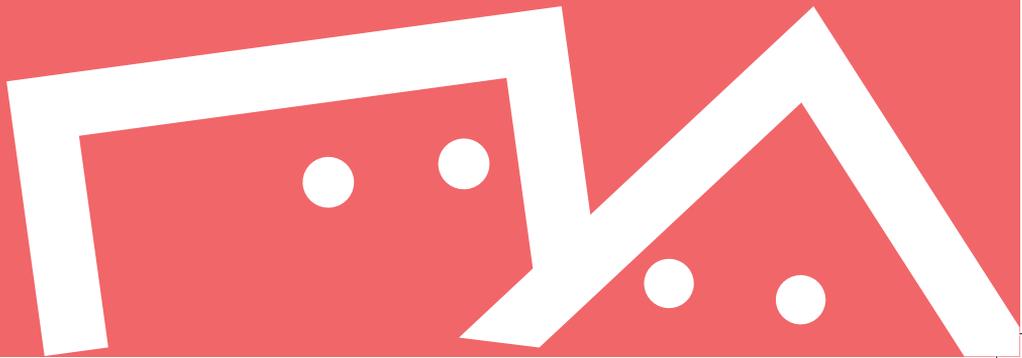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9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2019 KACES  
International Symposium I



#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 2019 KACES International Symposium I

**심포지엄명**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  
About the Very Young: Inspiration from the Experience

**일시/장소** 2019. 5. 22(수) 14:00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모더레이터**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첫 번째 날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일궈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켜온 신념과 원칙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만나고 있으며 과연 우리는 이들과 잘 만나고 있는지, 이 때 예술의 결합은 왜 중요한지 등 매개자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사회: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b>축사</b>	14:00~14:05	<b>김용삼</b>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b>이규석</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b>특별강연</b>	14:05~14:30	<b>오은영</b>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b>특별공연</b>	14:30~14:45	<b>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lt;엄마의 작은 노래&gt;</b>
<b>모더레이터: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b>		
		<b>최영애</b>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교육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
		<b>로베르토 프라베티</b>   라 바라카 극단 예술감독 연극과 아주 어린 사람들
<b>발제</b>	14:50~16:10	<b>아쿠아 코야테-테이트</b>   울프트랩 부대표 예술: 균형있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의 멋진 친구
		<b>마이크 더튼</b>   톤코하우스 예술감독 예술교육으로 떠나는 여행
<b>라운드 토크</b>	16:10~16:40	모더레이터와 발제자 전원



## 특별 공연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 자장가 프로젝트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카네기홀의 음악 프로그램 ‘뮤지컬 커넥션(Musical Connections)’ 일환인 ‘자장가 프로젝트(Lullaby Project)’는 예비엄마와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어린 아기의 부모를 위해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 부모와 아이 간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전문 음악가들이 파트너가 되어 세상에 하나 뿐인 특별한 자장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미혼모 시설의 협력 요청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적, 교육적 활동을 이어가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엄마와 작곡가 간의 음악적 교류와 교감의 과정, 엄마만의 감성적, 개인적 성찰을 통해 작사·작곡 후 전문 녹음작업을 거친 음원은 사운드클라우드 카네기홀 채널에 업로드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 되고 있다. 또한 카네기홀에서 매년 기념 공연을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고 있다. 뉴욕시와 미국전역,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 1,400곡이 넘는 자장가가 탄생하였고, 학교, 돌봄시설, 노숙자쉼터, 교정시설, 난민캠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음악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 엄마의 작은 노래

지난 봄, 한국에서도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만난 지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홉 명의 부모와 여덟 명의 작곡가가 만났다. 아이에 대한 마음, 그리고 각자가 품고 있는 엄마가 된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을 매일 매일 아이에게 들려줄 엄마만의 노래로 만들고, 녹음하고, 가족과 지인을 초대하는 작은 공연도 열었다. 주간행사 개막공연 무대에서는 엄마와 작곡가들의 목소리로 직접 노래하는 <보들보들>, <라봉라봉>, <초코케익> 총 세 곡을 만나볼 수 있다.

SEM네트워크(사회 참여적 음악가 네트워크, Socially Engaged Musicians Network)는 음악가들이 지닌 풍성한 음악적 자산과 개인적 역량이 사회의 개개인,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맞닿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이번 <엄마의 작은 노래> 프로젝트에 함께했다.

**노래** 작곡가와 엄마들

**작곡가** 김혜성, 최세봄, 김인규

**엄마** 강지우, 최미경, 심유라

**악기** 건반(김인규), 기타(최세봄), 플루트(박건영), 첼로(이지행)

**음악감독** 이나리메

**프로젝트 기획운영** 서지혜, 김정선, 구자민, 김현숙, 박예림



### 남인우 In Woo Nam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Art Director, Play BST

연극을 만들고, 연극을 나누는 연출가이다. 상상과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어린이극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여 연극의 관객으로부터 다소 먼 곳에 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궁무진한 상호작용의 힘을 믿고 있다.

상상력은 우리 모두가 어릴 때 이미 다 경험했던 시절로부터 회복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스승의 말에 과연 누가 아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훼손하고 있는지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보라색 그림자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돌돌 말아서 만든 신문지 막대가 오늘은 어떤 세상으로 데려다 줄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아이들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 이야기를 세상과, 예술과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아동청소년극전공 MFA를 졸업하고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상임연출로 활동 중이다. <봉장취> <가문장아기> <재주 많은 다섯 친구> <소년이 그랬다>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 어린이청소년연극을 이끌며 연극의 교육적 가치, 예술의 힘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 오은영 Eun-young Oh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Specialist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부모' 등을 통해 국민 육아멘토로 알려져 있다. <오은영의 화해>,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가르치고 싶은 엄마 놀고 싶은 아이>, <못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오은영의 마음처방전 성장, 행동, 감정> 등 다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수년간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육아기술보다 부모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즉문즉답, 강연 등 현장과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밝고 힘 있는 육아메세지를 전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한다.

##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How to pass your values on to your kids?

영유아를 주제로 한 이번 주간행사 개막무대에 특별게스트로 함께하는 오은영 박사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주제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와 잘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등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영유아를 만나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을 공통적인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생각과 마음 구별하기, 제대로 된 공감하기, 마음읽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가짐과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최영애 Young Ai Choi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아동청소년극 전공 교수  
Professor, Drama/Theatre for the Young, School of Dram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국내에 아동청소년극 1세대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영애 교수는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연구소 초대 소장, 교육극단 사다리 창립멤버, 국제아동청소년연극 리서치네트워크(ITYARN) 창립멤버다. 2008년 아시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 협회) 세계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압도적으로 선출되었고 지금은 명예이사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내외 현장과 이론을 왕성히 넘나들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2022년까지 지속될 17개국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젝트(EU Project)에서 영유아의 공연예술분야 미적체험 맵핑작업 연구에도 참여중이다.

##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교육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

### Why artistic experience for Early Years?

영유아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를 좋아하는지 보다 내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린이를 위한 공연, 영유아를 위한 예술 교육이 아닌 내가 안으로 들어가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진짜 현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좋아해야 하며 그럴 때에 비로소 숨어있던 보물을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결국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답을 찾기보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관객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몸소 실천하며 꾸준히 전진해온 그 만의 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봄으로써 예술교육 현장에서 영유아를 만나, 혹은 그러기 위해 준비 중인 수많은 이들의 시작을,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응원한다. 우리는 왜 영유아와 만나는가?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로베르토 프라베티 Roberto Frabetti

극단 라 바라카 예술감독·연극예술가  
Artistic Director·Theatre Artist  
La Baracca-Teatro Testoni Ragazzi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라 바라카 극단은 독창적인 연극 스타일을 고수하는 아동·청소년극 전문 극단이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작품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로베르토 프라베티(Roberto Frabetti)는 1976년 라바라카 극단에 합류하여 예술감독, 연극예술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986년 볼로냐 지방정부 협력 하에 ‘연극과 영유아(Theatre and Early Years)’연구를 시작으로 62편의 직접 쓴 연극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그 중 영유아극은 34편이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를 위한 예술프로젝트 스몰사이즈(Small size)를 총괄했고 ‘문화예술 아동권리 헌장(Charter of children's rights to art and culture)’을 작성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라 바라카 극단이 주관하는 ‘미래의 비전, 연극의 비전-국제어린이극문화축제(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and culture for early childhood)’ 총괄을 맡고 있다.

## 연극과 아주 어린 사람들 The theatre and the very young

0-3세의 어린 아이들은 몸집은 매우 작아도 어른(걸리버)을 따뜻하게 맞이할 줄 알고, 탐험하기를 좋아하는 복잡하고도 놀라운 존재다. 한 살과 두 살 아이들 사이엔 그저 1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쉬우나 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준비 중인 소중한 과정이다. 아이들은 제각각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진 행성과도 같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성들 중 ‘아주 어린 사람들의 행성’이야말로 가장 탐구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매우 처음의 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연극 분야도 아주 어렵다고 할 만큼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영유아를 위한 연극 모델이 없던 시절부터 30년 이상 극을 쓰고 만들어온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하며 상상력이 필수요소라고 말한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그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나고자 하는 영유아, 그들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아쿠아 코야테-테이트 Akua Kouyate-Tate

울프트랩 부대표·영유아기관 총괄  
Vice President, Education  
Wolf Trap Foundation for the Performing Arts

버지니아주 비엔나의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울프트랩(Wolf Trap Foundation for the Performing Arts)은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예술을 통한 영유아기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Wolf Trap Institute for Early Learning Through the Arts)을 운영하며 영유아기 통합 예술교육 중심의 전략 수립, 파트너 간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영유아 뿐만 아니라 유아 예술교육 매개자인 가족, 돌보미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재 미국 전역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울프트랩 모델을 활용하고 적용한 티칭아티스트-교사 협력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다.

아쿠아 테이트(Akua F. Kouyate-Tate)는 울프트랩 부대표이자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2001년 울프트랩에 합류하기 전 25년 이상 다양한 예술 기관, 장애인 재단, 정부기관에서 예술가, 교육자, 관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미국 연방예술기금관(NEA) 주·지역 단위 예술기관 예산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예술: 균형있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가는 어린이의 멋진 친구

### The Arts: A Great Equalizer to Support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Success in Life

울프트랩은 영유아부터 7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술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신체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콘텐츠에 접근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끄는 데 주력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울프트랩의 티칭아티스트-유아교육자를 위한 영유아 예술 결합교육 모델을 소개하고, 유아기 학습 환경에서 예술결합교육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나눈다. 그 간 통합예술교육을 적용해 주제별(교과목)콘텐츠를 학습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오고 있는지, 유아기 학습에서 통합예술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공유하고자 한다.



### 마이크 더튼 Mike Dutton

톤코하우스 예술감독 Art Director, Tonko House

톤코하우스는 미국 픽사 스튜디오에서 각광받았던 예술감독들이 픽사에서 이룩한 성공과 편안함에 그치지 않고 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끊임 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어졌다. “모두가 재미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단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아닌 도서, 교육자료 제작, 교육프로그램,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빛과 색의 마법을 부린 듯한 그림에 따돌림, 환경문제 등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메시지를 담아낸 대표작 <램 키퍼>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오스카상 후보, 아이스너상 후보, 안시 크리스탈 어워드를 수상하며 최근 전 세계 애니메이션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톤코하우스는 그 간 <라따뚜이>, <토이스토리3>, <몬스터대학교> 등 수년간 픽사 영화들의 컨셉아트들을 제작한 경험을 통해 개발한 ‘보는 방법’과 ‘페인팅 방법’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젊은 아티스트들과 예술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전문인력들과 나뉘었으며 어린 아이들을 위한 톤코하우스만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떠한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예술감독 마이크 더튼(Mike Dutton)의 ‘글씨가 없는 워크북’이 탄생했다.

워크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그림으로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상상력과 호기심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고, 이 ‘글씨가 없는 워크북’ 워크숍 프로그램은 주간행사 기간 중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 예술교육으로 떠나는 여행 A Journey in Kids Art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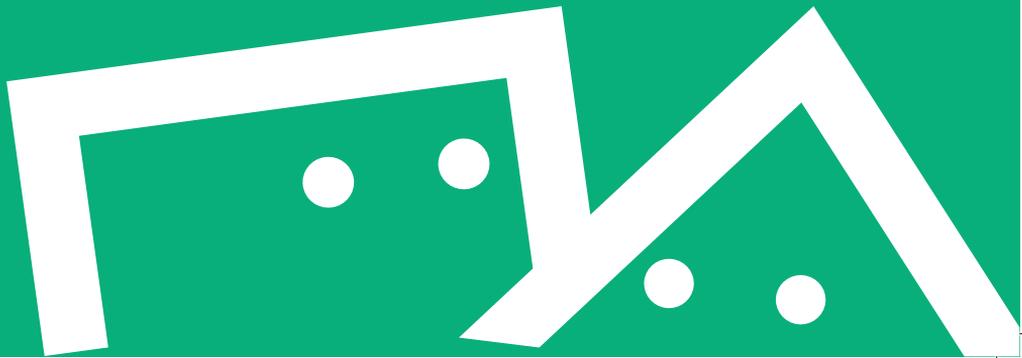
마이크 더튼은 톤코하우스 예술감독으로 합류하기 전 구글 두들러(Doodler)로 200개 이상의 구글 메인페이지를 디자인한 한국계 아티스트로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도서에 삽화를 그리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였던 워크북을 설계하며 발전시켜온 과정을 나눈다. 특히, 그가 워크북 한 페이지를 만들 때 마다 끊임없이 던졌던 네 가지 질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미가 있는지(Is it fun?), 호기심을 자극하는지(Does it inspire curiosity?), 또 참여하고 싶은 일인지(Let’s do that again!), 과정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지(Reflection).” 그 만의 원칙과 질문들이 예술교육 현장에 있는 창작자와 참여자뿐만 아니라 경험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어린이들의 일상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한다.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II  
2019 KACES  
International Symposium II



#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II

## 2019 KACES International Symposium II

**심포지엄명**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About the Arts Explorers: Sharing ideas, practices, and insights

**일시/장소** 2019. 5. 23(목) 14:00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멀티프로젝트홀

**말 이 끄**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날은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실천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예술교육은 어린이들이 예술을 직접 접하고 탐구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의 한계를 넘어 보다 창의적인 예술 참여를 유도합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법과 창조적 교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b>여는 마당</b>	14:00~14:10	<b>마중</b> 낭독+음악+영상 <b>여는 이</b>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b>제 1 법석</b>	14:10~14:55	<b>이끔 말</b> 루시 힐   디 아크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현실화 이론-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b>마당 말</b> 모두 함께
<b>제 2 법석</b>	14:55~15:40	<b>이끔 말</b> 예 슈팡   싱가포르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b>마당 말</b> 모두 함께
<b>사이 마당</b>	15:40~15:50	<b>쉽</b> 음료+음악+영상
<b>제 3 법석</b>	15:50~16:35	<b>이끔 말</b> 켓 박스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 놀이 만들며 탐구하기: 테이트 키즈의 온라인 예술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법 <b>마당 말</b> 모두 함께
<b>제 4 법석</b>	16:35~17:20	<b>이끔 말</b>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참여하는 미술관: 어린이 ·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의 예술 경험 <b>마당 말</b> 모두 함께
<b>닫는 마당</b>	17:20~17:30	<b>배웅</b> 음악+영상

※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 김종길 Gim Jong-gil

경기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Chief Cura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다. 서구와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통섭적 학문체계 속에서 당대 한국 미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공부 중이다. 모란미술관과 경기도 미술관 큐레이터를 거쳐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평화박물관 SPACE99 운영위원장, 지순협(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의 예술교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로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 팔방미인>(2010), <경기도의 힘>(2010), <1990년대 이후의 정치미술: 악동들, 지금/여기>(2009), <언니가 돌아왔다>(2008), <경기, 1번 국도>(2007)가 있다. 저서로 『옥상의 정치』(갈무리, 2014), 『포스트민중미술 사면/리얼리즘』(삶창, 2013)이 있고, 『오윤 전집』(현실문화연구, 2010), 『100.art.kr: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영문판, 열린책들, 2012), 『1970-80년 대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눈빛, 2011) 등의 공저가 있다.

김복진미술이론상(2011), 한국박물관협회 올해의 큐레이터상(2011),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장려상(2010), 이동석전시기획상(2009),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신인평론상(2005)을 수상했다. 현재 경기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로 재직중이다.



### 루시 힐 Lucy Hill

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Artist of Early Years Artist in Residence, The Ark Children's Cultural Centre

루시 힐은 유아 시각예술교육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지닌 예술가, 교육가 그리고 연구원이다. 윈체스터예술대학에서 미술 석사학위 취득 후 아일랜드연구위원회 장학금을 수여받아 현재 국립예술디자인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예술가로서 연구 이론과 예술적 실천을 연결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현실화 이론 - 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 Materialising Theory - An Early Years Artist Residency at The Ark Children's Cultural Centre, Dublin

디 아크는 유럽 최초의 어린이 문화센터로,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예술 작품이 창조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예술과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위해 전문 예술인에게 1년 동안 연구를 지원하는 존 클라한 아동 예술교육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2~4세 유아, 부모 및 양육자들과 매월 한 차례씩 만나 진행된 시각 예술교육 워크숍을 소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국립예술디자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기초로 디자인되었으며, 일반 참가자 대상 외에도 더블린시의회 지원을 통해 다인데이 벨캠프 통합보육서비스 참여 어린이 및 교사, 망명신청 가족 및 어린이 대상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피드백과 함께 올해 출간될 예정인 도서 『Working with Young Children in Museum's: Weaving Theory and Practice』(루시 힐, 이슬링 오골먼(아크 프로그램 매니저)공동 저술, 맨체스터메트로폴리탄대학교 아비가일 해켓, 크리스티아 맥레, 레이첼 홈스 박사 편집)에 수록된 사례들도 공유하고자 한다.



### 예 슈팡 Ye Shufang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케펠예술교육센터장  
Deputy Director of Education & Head of Keppel Centre for Art Education  
National Gallery Singapore

예 슈팡은 1995년 싱가포르 라살예술대학에서 시각예술 강의를 시작으로 2002년~2007년 미술학부와 석사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연구·실습·평가 구조를 개발하고 지도하였다. 2007년~2010년까지 싱가포르예술학교(SOTA)의 시각예술 학과장으로 IB학위 프로그램의 6년 과정 커리큘럼을 연구·개발·운영하였으며, 예술교육 평가척도와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교수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공공 예술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싱가포르 국립예술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으로 어린이, 가족, 교사들을 위한 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케펠예술교육센터를 이끌며 창의적 공간과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예술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 What do children want to know about Art?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은 오늘날 어린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미술관의 대표적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케펠예술교육센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과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령기 아동 대상 예술교육활성화 프로그램 <the Primary 4 Museum-based learning programme>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학습, 게임, 투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예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창의적인 학습법과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아이들의 예술참여 방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캣 박스 Kat Box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 Tate Kids Producer, TATE

캣 박스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어린이 전용 온라인 예술 플랫폼인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이다. 지리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맨체스터대학교, 휘트워스 미술관과 맨체스터 박물관에서 근무하였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강한 열정으로 학습, 디지털, 마케팅 세 가지 요소의 혼합을 통해, 미술관, 메이커 스페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서 예술참여를 이끌어내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 방식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 놀이 만들며 탐구하기: 테이트 키즈의 온라인 예술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법

### Play, make and explore: How Tate Kids engages kids with art online

테이트 키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과 닿으며, 그들이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어린이 미술관이다. 예술가, 창작 기법, 장르 등 다양한 예술관련 소재를 게임, 퀴즈,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어린이들도 예술과 만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창의적 방법으로 유도한다.

어린이를 위한 예술 콘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온라인 참여가 신체활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목소리의 톤과 언어를 디지털 콘텐츠로 형상화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때 예술과 창의성 개발에 가장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질문들을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보이는 주요 행동 특성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예술가·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과 콘텐츠 제작 의사결정 과정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의 효과와 도전 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황지영 Hwang Jiyoung**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Associate Educator, Department of Education & Cultural Programs Associate  
Educ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황지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립멤버로 교육개발팀장, 창의사업팀장을 역임하며 설립과 초기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다. 2014년까지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에서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 ‘어린이·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참여하는 미술관: 어린이·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의 예술 경험

### Participatory museum: Arts experience for Children and Families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 서울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과천에 위치한 어린이미술관은 1997년 개관 이후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속 미술관으로서 특성을 반영한 예술놀이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최근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가 가족(동반자)과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대미술 기반의 참여형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예술적 경험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한 실천을 이어 왔으며, 관련된 운영 사례와 도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시, 작품 감상과 연결되는 열린 교육공간에서의 미술관교육프로그램 참여는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어린이의 자유로운 참여, 가족(동반자)과 함께 예술을 즐기고 경험하기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배움이나 학습이 아닌 참여자 스스로 호기심과 생각을 탐구하는 프로그램, 예술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지가 있는 경험과 공간’을 제공 한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미술관교육 분야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동반자)과 함께하는 문화향유와 예술 경험은 중요한 논의이다. 가족(동반자)이 함께 즐기는 예술 경험은 문화를 만들고 어린이가 일상에서 예술을 보다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처럼 미술관이 어린이·가족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한 방법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과천 어린이미술관 기능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강화, 문화예술교육 정책 진흥기반 조성,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홍보 및 국제교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arte.or.kr](http://www.arte.or.kr)

웹진 [아트페365] [www.arte365.kr](http://www.arte365.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ejockey](https://www.facebook.com/artejockey)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